

성인 비혼 남녀의 비혼 유형 관련 요인 탐색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related to types of never-married among adult men and women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비자가족학과 박사 김지유**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조희선***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Doctoral: Kim, Ji-Yu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Cho, Hee-Sun

목 차

I. 서론

II. 선행연구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classify never-married types of adult men and women and explore factors related to these types. Never-married types were categorized into 4 types according to continuity and voluntariness: continuous voluntary type; changed voluntary type; continuous non-voluntary type; and changed non-voluntary type. Factors related to types of being single were examined in terms of socio-demographic factors, individual and psychological factors (self-esteem, depression), dating relationship factors (current relationship status), original family factors (parental conflict, relationship with parents, parents' demand for marriage), marriage related factors (division of roles after marriage), and occupation related factors

* 본 논문은 주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caci69@hanmail.net

*** 교신저자: hscho2@skku.edu

(work values, employment instability). **Method:** As for research metho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never-married adult men and women between the ages of 35 and 49 living in Seoul, Gyeonggi or Incheon areas. Of 300 copies of questionnaire distributed, data from 295 copies were processed using SPSS 24.0 program for multinomial logit analysis. **Result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of never-married men respondents, continuous voluntary type accounted for 20.5%; changed voluntary type 18.9%; continuous non-voluntary type 49.6%; and changed non-voluntary type 11.0%.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related to continuous non-voluntary type among never-married men are age, religion, average monthly income, while the factors related to changed voluntary type are religion, self-esteem, depression, and frequency and strength of parental conflict, while the factor related to changed non-voluntary type men was living with parents. Examining never-married women respondents, it was found that, continuous voluntary type accounted for 33.9%; changed non-voluntary type 19.6%; continuous non-voluntary type 22.6%; and changed voluntary type 23.8%. The factor related to continuous non-voluntary type among never-married women was parents' demand for marriage, while the factors related changed voluntary type were age, depression and strength of parental conflict. Also, the factors related to changed non-voluntary type of never-married women were age, religion, living with parents, depression and parents' demand for marriage. **Conclusion:**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continuous non-voluntary type formed the largest group among never-married men, whereas continuous voluntary type was the majority in never-married women. Both never-married men and women chose to remain single when they are living with their parents and their parental conflict is intense. Parents' demand for marriage was related to women, but not to men.

주제어(Key words): 비혼(never-married), 비혼 유형(types of never-married), 성인남녀 (Adult men and women)

I. 서론

우리나라의 가족 변화 중 두드러지는 특징은 가족형태의 다양성과 함께 비혼(非婚)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다. 2017년 우리나라 35세~49세 비혼 인구는 1995년 2.4%, 2000년 3.4%, 2005년 5.8%, 2010년 8.6% 그리고 2015년에는 12.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Statistical Korea, 2017).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비혼 인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Kim, Sun, Jin & Sakong, 2007).

그동안 가족학에서는 결혼과 가족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비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Sung, 2014). 하지만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학문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혼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Eum, 2015; Kang, 2010; Kang, 2015; Lee & Kim, 2015; Sung, 2014; Yang, 2005). 최근 방송에서도 비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¹⁾ 접할 수 있고, ‘비혼족’²⁾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어 사회적으로도 비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1) 나 혼자 산다; MBC, 불타는 청춘; SBS, 미운 우리새끼; SBS, 우리가 진짜 결혼하지 않는 이유; MBC 스페셜; 비행소녀; MBN

2) JTBC, 4월 28일

혼인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미혼(未婚)이라는 단어보다 싱글, 독신, 비혼(非婚)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Lee et al., 2012). 미혼은 '결혼이 정상적인 삶의 형태이며, 결혼하지 못한 미완의 상태로 결핍이 내포' 되어 부정적 이미지를 포함(Kim, 2007)하고 있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혼(非婚)'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고 있다(Lee, 2000). 이처럼 비혼 연구가 증가하며 관심도 많아지고 있지만, 성인남녀의 특성을 특정 짓기엔 아직 그 성과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비혼 연구의 중요성을 학문적, 사회·문화적 요구를 근거로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동안 가족은 결혼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어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으로 급격히 변화하며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를 경험하였다. 여성은 교육기회와 노동시장의 확대 및 참여로 비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겪으며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였다(Kang, 2010; Kim, 2007; Sim, 2003). 남성은 지속된 경제 불황과 취업난으로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이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비혼을 선택하였다(Lee, 2012).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직되고 완고한 결혼문화는 비혼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성되었으며 그중 하나로 비혼, 1인 가구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결혼 및 가족의 인식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제도 및 정책에도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근거하여 비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Kim et al., 2007). 그러기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혼 집단을 연구하고 가족제도 및 정책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미국은 비혼 인구증가가 시작된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비혼 연구가 집중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드물게 나타났다(Kang, 2010).

초기 비혼 연구에서는 비혼자를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으로 보고 사별과 같이 이혼 연구에 포함하여 연구하였지만 점차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독신과 구별하였다(Allen & Pickett, 1987). 이후 비혼의 선입견, 심리적 문제, 개인/사회적 만족감 연구(Allen & Pickett, 1987), 미국 비혼 성인의 고정관념, 편견 등 인식조사(Brady, 1993; Depaulo & Morris, 2005)가 진행되었다. Simenauer & Carroll(1982)은 비혼의 동기를 연구하였는데 여성은 단지 결혼을 원치 않기에 비혼을 유지하며, 과도한 헌신과 책임 때문에 결혼을 회피한다고 하였다. Cooney & Uhlenberg(1989)는 전문직 여성은 다른 집단보다 싱글로 남아 있기를 더 원하고(Kang, 2010), 여성은 원가족이 비혼의 삶을 유지해 가는 데 영향을 미치며(Allen & Pickett, 1987; Kim, 2007), 원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결혼을 회피한다고 하였다(O'Brien, 1991).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비혼 연구가 시작되었다. 2003년 무렵부터는 저출산 현상으로 여성이 가족해체의 원인을 제공한다는(Kwon, 2012) 부정적인 이미지를(Kim, 2007) 갖게 되었다. 국내 비혼 연구는 독신의 인식 및 독신 경험 실태조사(Kim & Kim, 2005), 비혼 여성을 새로운 가족으로 바라보는 연구(Kim, 2007), 가족의식 연구(Kim, 2005; Kim, 2007), 비혼 여성의 자발성 관련 요인(Kang, Jin & Ok, 2010)이 진행되었다. 이렇듯 국/내외 연구는 거의 비혼을 단일 집단으로 연구하며 비혼 자체보다는 비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연구가 많기에 비혼의 내부적 차이에 주목하여 세부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혼 유형 연구는 크게 자발적 비혼(Kang et al., 2010; Sung, 2014)과 비자발적 비혼(Eum, 2015)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독신(비혼)을 유형화한 Stein(1981)의 기준 분류에 따라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나누었다. Stein은 비혼 집단이 고정적 이미지로 인해 내

부의 다양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명확한 구분보다 독신의 다양성, 독신 삶의 이질적 경험, 독신의 자발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Kang, 2010). 이처럼 비혼의 유형화 연구는 비혼 성인남녀의 체계적인 분석이 쉽지 않아 심층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Lee & Kim, 2002), 유형별 내부적 차이를 보고 가족학 이론 형성의 기초를 쌓을 수 있기에(Sung & Ok, 2002) Stein(1981)의 연구 이후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Stein(1981)의 유형화 이후에도 비혼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내부를 다양성을 포함할 비혼 유형 연구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 Shostak & Steinmetz(1987)은 독신 기간과 자기 의사에 따른 분류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중에 결혼을 선택하는 ‘유동적인 비혼’을 제시하였다. Keith(1986)도 자발적 비혼에서 비자발적으로, 일시적에서 장기적인 비혼으로 변하는(Ok, 1999) 유동적인 비혼을 주장하였다. Yang(2005)도 20대~30대에는 결혼에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이었다가 30대~40대가 되어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유동적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비혼 집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동적이 사람이 있지만 비혼 연구는 여전히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비혼을 단일 집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비혼에 대한 생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유형을 나누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적인 비혼의 증가(Keith, 1986; Ok, 1999; Shostak & Steinmetz, 1987; Yang, 2005)로 비혼 연구의 필요성이 있기에 Stein(1981)의 자발성 여부(자발-비자발)와 유동적 비혼을 나타내는 지속성 여부(지속적-변화된) 두 축을 중심으로 비혼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동안 비혼은 여성이 주도하며 가족 변화를 이끌어 왔기에 비혼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Eum, 2015; Kang, 2010; Sim,

2002; Yang, 2005). 하지만 연구의 비중이 적었던 비혼 남성도 계속 증가하고(Lee & Kim, 2015) 남성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비혼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그 이유는 향후 결혼과 가족의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Lee(2012)의 연구에서도 결혼 이슈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남성은 사회/경제적 지위만 있으면 연령이 높아도 결혼 기회가 열려 있지만, 여성은 경제적인 지위가 있어도 연령이 높아지면 결혼의 기회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남성은 초혼 연령을 40대까지도 자연스레 받아들이는데 여성은 30대 중후반만 지나면 결혼 적령기를 놓쳤다는 인식이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기에 남녀를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선행 비혼 유형 관련 요인에 개인·심리요인, 이성교제 요인, 원가족 요인, 결혼 관련 요인, 직업 관련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심리요인에서 자아존중감 변인을 살펴보면 Sim(2002)은 자발적인 여성은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것 때문에 움츠러들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였다. Kang(2010)의 연구에서도 자발적 비혼 여성은 아버지의 칭찬과 기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우울 변인을 살펴보면 Kim(2016)의 연구에서 자발적 비혼 여성은 자신이 비혼을 선택하였지만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슬픔과 우울함을 보였다. 또한 혼자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 서글픔을 표현하였다. 반대로 Kang(2010)의 연구에서 자발적 비혼 여성은 우울보다는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성교제 요인을 살펴보면 자발적 비혼 여성은 남자 친구와 헤어진 후 남성에 대한 불신이 생겼으며(Sim, 2002), 이성이나 연애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Kang, 2010). 원가족 요인으로 부모의 부부 갈등(빈도, 강도)변인을 살펴보면 Sung(2013)의

연구에서 자발적 비혼의 계기를 유년 시절 부모님의 불행한 부부관계로 청소년기부터 비혼을 선택한 남녀도 있었다. Ryu(2007)의 연구에서 비혼 여성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순종적이며 억압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발적 비혼을 선택하였다. 부모와의 관계 변인은 Kang(2010)의 연구에서 자발적 비혼 여성은 아버지와 관계가 원만하고 부모님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자랐다. 부모의 결혼 요구 변인은 Kang(2018)의 연구에서 자발적 비혼 여성은 결혼하지 않을 것을 주변에 알렸음에도 결혼에 대한 권유와 선이나 만남에 대한 압박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결혼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결혼 후 역할 부담감 변인은 여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에 거부감으로 다가와 자발적 비혼으로 물고 갔다(Kang, 2018; Sim, 2002). 특히 남편 쪽 가족을 중시하는 풍토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가부장적 결혼에 저항하며 자발적 비혼을 선택하였다. 양성평등 변인은 Kang(2010)의 연구에서 자발적 비혼 여성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남자와 평등하게 교육시켰다. 직업 관련 요인에서 일 가치감 변인은 Sim(2002)의 연구에서 자발적인 여성에게 일은 사회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 성취감을 얻는 통로가 되었다. 고용 불안정성 변인은 Kang(2010)의 연구에서 자발적 비혼 여성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을 준비하고자 혼한 연애를 하거나 선을 볼 수도 없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의 목적은 비혼 성인 남녀의 비혼 유형을 나누고 관련 변인을 연구하는 것이다. 비혼 유형은 Stein(1981)의 자발성 여부(자발-비자발)에 따른 분류와 유동적 비혼(Keith, 1986; Ok, 1999; Shostak & Steinmetz, 1987; Yang, 2005)을 나타내는 지속성 여부(지속적-변화된) 두 축을 중심으로 4 유형으로 나눈 후 성별에 따른 관련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성인남녀의 비혼 유형(지속적 자발형, 변화된 자발형, 지속적 비자발형, 변화된 비자발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성인남녀의 비혼 유형 관련 요인(개인·심리 요인, 이성교제 요인, 원가족 요인, 결혼 관련 요인, 직업 관련 요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고찰

1. 비혼의 정의와 유형

일반적으로 혼인한 적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 ‘never-married’, ‘unmarried’, ‘celibacy’, ‘bachelor/spinster’가 사용된다. ‘never-married’, ‘unmarried’는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singlehood’나 ‘single’은 간헐적 동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사람도 포함한다(DePaulo & Morris, 2006; Ok, 1999). 국내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혼인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미혼(未婚)이라는 단어보다 싱글, 독신, 비혼(非婚)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Lee et al., 2012). 그동안 사용되었던 ‘미혼(未婚)’이라는 개념은 ‘결혼이 정상적인 삶의 형태이며, 결혼하지 못한 미완의 상태로 결핍이 내포’ 되어 부정적 이미지를 포함(Kim, 2007)하기 에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비혼(非婚)’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Lee, 2000). Kim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비혼 1인 가구를 조사하며 미혼, 이혼, 사별한 사람 모두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별이나 이혼한 사람과 결혼경험이 없는 비혼 남녀를 구별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비혼 성인 남녀가 증가(Statistical Korea, 2017)하기에 결혼 경험이 없

는 성인 남녀의 관련 변인을 연구하여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비혼에 대한 개념은 Kang(2010)과 Sung(2013)의 조작적 근거로 현재 법적, 사실적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며, 과거 결혼 경험이 없는 성인 남녀로 한정하였다.

1) 비혼 유형

Stein(1981)은 자발적 비혼과 비자발적 비혼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독신의 삶을 지속성 여부(지속-일시)와 자발성 여부(자발-비자발)로 두 축을 중심으로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비혼 유형을 나누는 이유는 비혼 집단이 복잡하고 이질적으로 구성되어있음에도 비혼을 단일한 집단으로 이해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Stein(1981)의 자발성 여부에 따른 연구 이후 Shostak & Steinmetz(1987)은 나중에 결혼을 원하는 '유동적 독신'을 제시하였으며, Keith(1986)도 자발적 비혼에서 비자발적으로, 일시적에서 장기적 비혼으로 변화하는 유동적 비혼을 주장하였다(Ok, 1999). Yang(2005)도 결혼에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이었던 사람도 시간이 흘러 30~40대에 결혼에 긍정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비혼에 대한 생각이 유동적인 사람(Keith, 1986; Shostak & Steinmetz 1987; Yang(2005))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도 비혼 유형을 Stein(1981)이 유형화한 자발성 여부(자발-비자발)와 유동적 비혼(Keith, 1986; Shostak & Steinmetz, 1987; Ok, 1999; Yang, 2005)을 나타내는 지속성 여부(지속적-변화된) 두 축을 중심으로 4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비혼 유형 변화의 과거 기준은 5년 전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총 조사 조사는 10년 단위로 조사하지만, 인구변동이 큰 나라들(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는 한국과 일본)은 5년 주기로 조사(Population Association, 2016) 하기에 비혼의 변화 여부 기준을 5년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비혼에 대한 생각은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주된 비혼 유형 연구는 자발적 비혼(Kang, 2010, Kang et al, 2010, Kim, 2016, Noh & Lee, 2011), 비자발적 비혼(Sung, 2014), 자발적 비혼과 비자발적 비혼을 혼합한 연구(Jeong, 2015; Kang, 2015, Kim, 2007, Ok, 1999; Sim, 2002)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Kim & Kim(2005)의 자발적-비자발, 일시적-안정적(결혼할 수 있다는 기대)인 두 축을 중심으로 한 연구, Lee(2012)의 자기 선택형, 여건 미비형, 미스 매치형으로 한 연구, Lee(2015)의 자발적, 한시적 비혼, 비자발적 비혼을 나누어 연구가 나오며 비혼 집단을 유형을 나누어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집단의 내부를 보는 성과가 미비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는 성인남녀의 비혼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 비혼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연령, 성별, 종교, 부모와의 동거,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 변인을 포함하였다.

첫째, 성인남녀는 연령에 따라 비혼 유형에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62.2%, 30대 80.4%, 40대 78.2%, 50대 64.1%로 모든 연령에서 비자발적 비혼이 많았다(Kim, 2007). Kang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20대는 자발적 비혼 여성이 43.2%, 30대는 55.6%, 40대는 18.8%로 비자발적 비혼 여성이 많아 연령이 낮을수록 자발적 비혼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im(2002)의 연구에서도 35세에서 40대 후반 비혼 여성을 연구하였는데 자발적 비혼 여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비자발적 비혼이 많은 연구도 있었다(Chin & Chung 2010; Kim, 2006). 특히, 여성은 40세가 넘으면 혼기를 놓쳤다는 생각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2013), 비혼 여성이

40세 이전까지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생각이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ng, 2013). 이것은 Stein(1981)의 연구와 동일하게 같은 비혼 집단이라도 내부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 비혼에 대한 생각이 점차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Keith, 1986; Ok, 1999; Shostak & Steinmetz, 1987; Yang, 2005).

둘째, 성인남녀는 성별에 따라 비혼 유형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k(1999)의 연구에서 남성은 비자발적 비혼이 56.9%, 여성은 자발적 비혼이 57.1%로 많았으며, Kim(2007)의 연구에서 비자발적 여성 67.9%, 남성 79.0%였으며, Kim(2006)의 연구에서는 비혼 여성은 74.1%, 남성은 82.7%로 남·여 모두 비자발적 비혼이 많았다. Lee(2012)의 연구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은 사회경제적 지위만 있다면 결혼 기회가 있지만 여성은 경제적인 지위가 있어도 연령이 높아지면 결혼 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 남녀 차이가 있어 성별을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성인남녀는 종교에 따라 비혼 유형에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k(1999)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비혼 성인남녀는 40.5%, 비자발적 비혼은 36.4%로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 Kim(2010)의 연구에서 20대~30대 비혼 성인남녀는 종교를 가지고 있을 경우 긍정적인 결혼 태도를 보였으며, Jung(2011)의 연구에서도 종교가 있을 때는 결혼에 보수성이 높아 비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성인 남녀는 부모와 동거여부에 따라 비혼 유형에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06)의 연구에서는 남성은 단독 거주하고 있는 경우 결혼 의향과 무관하게 나타났지만 여성은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결혼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부모와 같이 살지 않으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혼 여부를 선택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Hong(2011)의 연구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남성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White & Peterson(1995)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이 결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Kang, 2017).

다섯째, 교육 수준은 연구마다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Kang et al(2010)의 비혼 연구에서 교육 수준에 따라 자발적 비자발적 비혼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Kim(2006)의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았다. Chim & Chung(2010)의 연구에서 20세~44세 비혼 남녀는 비 졸업자보다 대학 졸업자가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Kim & Sung(2011)의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았다.

여섯째, 직업에서 취업자는 비자발적 비혼 의향이 높았다(Chim & Chung, 2010). Kim(2006)의 연구에서는 비취업 비혼 남성의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혼 여성의 취업은 결혼의향에 유의미하게 보이지 않았다. 비취업자들은 자발적 비혼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자들은 비자발적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m & Chung, 2010). 이것은 대체로 직업이 있어야 결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3. 비혼 관련 요인

1) 개인·심리 요인

비혼 성인남녀의 개인·심리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우울 변인을 포함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기에 대한 가치와 수용도를 포함한 자신에 대한 느낌으로 볼 수 있다(Baumeister, 1994). Jung(2012)은 결혼 여부가 30세~64세 성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lliot(1996)

는 성인의 결혼 여부가 자아존중감 증가를 예측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원과 지지가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보이기에 성인의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Hartgers, 1990).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Sung et al., 2017). Sung et al(2017)의 부모와 비혼 자녀의 동거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Sim(2002)의 연구에서 자발적인 여성은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다른 사람도 자신을 불쌍하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정당성을 부여하며 살아가고자 하였다. Kang(2010)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비혼 여성은 아버지의 칭찬과 기대가 있어서 자신에 대해 능력 있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우울은 슬픈 감정을 지니고 있어 일상생활에 흥미와 관심이 없으며 자신이 처한 현재와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의사 결정을 못하여 고립되는 것을 말한다(Pfeiffer & Davies, 1977). Kwon & Kim(2004)의 연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감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가족 내에서 비난이 높을수록 자녀의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Sung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가 우울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Sim(2001)의 연구에서는 비혼자 보다는 사별·별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Kang(2010)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비혼 여성은 우울하다거나 외롭다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표현을 하였다. Kim(2016)에서 자발적 비혼 여성은 자신이 비혼을 선택하였지만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든 자신의 모습을 슬픔과 우울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혼자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 서글픔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은 아줌마도 아니고 아가씨도 아닌 그 중간이라고 하였다.

2) 이성교제 요인

이성교제 요인으로 이성교제(유무)는 결혼 관련 요인 중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 이성교제란 이성에 대해 정서적, 성적 친밀감을 느끼며 남녀가 지속적으로 사귀는 것을 의미한다(Kim, 2005; Kim, 2008). Ok(1999)의 연구에서 자발적 비혼 남녀는 비자발적 비혼 남녀에 비해 이성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Yang(2005)의 연구에서는 20대에 이성교제 없는 여성이 2/3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혼 여성은 30대가 되어 결혼에 관심이 생기고, 40대가 되면서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50대가 되어서는 결혼보다는 남자 친구를 갖기 원했다. Jo(2014)의 연구에서 비혼 여성의 56.5%, 비혼 남성의 64.9%는 이성 친구를 희망하였으며, 특히 남성은 모든 연령에서 이성 교제를 원했는데, 여성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결혼 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im(2002)의 연구에서 비혼 여성은 남자 친구와 헤어진 후 남성에 대한 불신으로 결혼 생각이 없어 자발적 비혼을 선택하였다. Kang(2018)의 연구에서 자발적 비혼 여성은 결혼 생각이 없음을 밝혔지만 연애 상대가 결혼을 위해 헤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Kang(2010)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비혼 여성은 이성이나 연애에 관심 별로 없었지만 연애 후 상대방 부모님의 결혼반대로 헤어지는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 친구 경험이 비혼 유형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변인에 포함하였다.

3) 원가족 요인

비혼 성인남녀의 원가족 요인으로 부모의 부부 갈등(빈도, 강도),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결혼 요구 변인을 포함하였다. 부모의 부부갈등은 부부 사이의 갈등은 자체보다 부모의 갈등을 받아들이

는 자녀의 인지 상태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Grych & Fincham(1990)는 연구에서 부모의 부부갈등에 따라 자녀가 받는 되는 스트레스를 강조하였다. 즉 부모의 부부갈등은 실제 측정된 부부갈등보다 자녀가 어떻게 인지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았다. 그것은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부부갈등이 주관적으로 자각되기 때문이다(Kim, 2005).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불행한 부부갈등은 자녀의 비혼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가 조사되었다(Cunningham & Thornton, 2006; Macklin, 1980; Spreitzer & Riley, 1974). 성인남녀의 결혼결정은 개인 선택이지만 부모의 부부관계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결혼생활에서 갈등이 적을 때 자녀의 결혼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갈등이 많았을 때 부정적인 결혼 태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Noh & Lee(2011)의 비혼 연구에서 여성은 부모님의 잦은 부부싸움 등 부부갈등으로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보였다. Lee & Kim(2015)의 연구에서 비혼 남성은 어린 시절 가정불화로 정서적인 불안정을 겪으며 결혼 자체보다 다른 것(일)으로 관심을 돌리며 혼기를 놓쳐 비혼 생활을 유지하였다. Sung(2013)의 연구에서 자발적 비혼의 계기를 유년 시절 부모님의 불행한 부부관계로 청소년기부터 독신주의를 선택한 비혼 성인남녀도 있었다. Ryu(2007)의 연구에서 비혼 여성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순종적이며 억압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발적 비혼을 선택하였다. Sim(2002)의 비혼 연구에서도 여성은 어린 시절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보내면서 안정과 평안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자발적 비혼을 선택하였다. Kang(2010)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비혼 여성은 부모님의 '질리는' 싸움을 보고 비혼을 결정하였다. Kim(2016)의 연구에서 자발적 비혼 여성은 부모의 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하지만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결혼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Kim, 2013; LandisKline, Foley, Nall, Padgett & WaltersPalmer, 1995). Kim(2010)의 연구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경험이 행복한 가정을 꾸며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와 결혼으로 이행을 막기도 하였다.

둘째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인남녀의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는 비혼에 비자발적인 모습을 만들어 비혼 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Part & Kim, 2010). Sung(2013)의 연구에서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고 딸의 성취를 돕고, 결혼을 강요하지 않는 친구 같은 어머니와의 친밀성은 비혼의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Noh & Lee(2011)의 연구에서 비혼 여성의 아버지는 무관심하고, 가족들과 소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남성에게 대한 불신이 생겨 비혼으로 이어졌다. Kang(2010)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비혼 여성은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서 어린 시절 무등을 태워주었고, 부모님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자랐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른 참여자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인해 가족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Park & Kim(2010)의 연구에서는 비혼 남녀 모두 아버지와 유대감이 높을수록 결혼을 원했다. 셋째, 비혼 성인남녀에 대한 부모의 결혼 요구는 비혼 유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Kim(2002)의 연구에서 성인남녀는 결혼하라는 압력을 자신의 원가족, 즉 부모, 형제·자매로부터 듣고 있었다. Lee(2015)의 연구에서 40대 남성은 부모와 친척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며 결혼 압력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 때로는 이러한 결혼 압박을 피해 해외로 떠나기도 하였다. Sim(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권유에 선을 보기도 하였지만 자발적 비혼을 선택하였다. Kang(2010)의 연구에서 자발적 비혼 여성은 언니가 일찍 결혼을 해서인지 부모님은 자신에게는 결혼에 대한 압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Kang(2018)의 연구에서 자발적 비

혼 여성은 결혼하지 않을 것을 주변에 알렸음에도 결혼에 대한 권유와 선이나 만남에 대한 압박으로 시달린다고 하였다. Park(2012)은 연구에서 부모는 딸이 자신을 돌보기보다 결혼하기를 바랐지만 자발적 비혼 딸은 부모의 강요를 무시해 버리기도 하였다. 비자발적 비혼 여성은 부모의 결혼 요구를 실행하지 못해 부모에게 불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Gilligan & Lyons(1982)는 자발적 비혼을 선택한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결혼의 권유나 압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Klener & Stein(1981)도 비혼자는 가족이나 타인에게 결혼 압력은 거의 받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Ok, 1999).

4) 결혼 관련 요인

비혼 성인남녀의 결혼 관련 요인으로 결혼 후 역할 부담감, 양성평등의식 변인을 포함하였다. 결혼 후 역할 부담감은 주변 사람의 결혼을 보며 결혼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요인이다. 비혼 여성은 부모나 형제/자매의 결혼생활과 친구의 결혼생활을 통해 결혼을 경험하였다(Noh & Lee, 2011). 40대 비혼 남성은 대중매체를 통한 고부갈등을 보며 그 어려움을 생각하였다(Lee & Kim, 2015). Ko(2011)는 연구에서 고학력 남성은 자녀를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잘 돌볼 수 없다는 생각에 자녀 양육의 부담감을 표현하며 아버지/남편의 역할도 피하고 싶어 했다. 아버지라는 지위가 부담감으로 다가오며 부인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의무감으로 비혼으로 남고자 하였다. Sim(2002)의 비혼 연구에서 결혼 후 역할 부담은 여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에 거부감으로 다가와 자신감도 없어 자발적 비혼으로 몰로 간다고 하였다. 특히 남편 쪽 가족을 중시하는 풍토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가부장적 결혼에 저항하며 비혼을 선택하였다. Kang(2018)의 연구에서 자발적 비혼 여성은 가정

에서 여성이 과도하게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거나 결혼으로 확대되는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둘째, 양성평등의식을 보면 서구에서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는 도구적 역할을,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표현적 역할을 해왔다(Parsons & Bales, 1955). 하지만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가사/자녀 양육의 책임자로서 규정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이러한 전통적 성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Maume, 2006). 여기에 양성 평등적 생각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과 자녀 양육도 나눌 수 있어 남녀 모두에 옹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2). 특히 여성은 경제활동이 증가하는데 부부간 역할과 책임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았을 때 결혼을 회피하였고(Auh et al., 2010), 가부장적 성 역할에 대한 불만족을 품으며 비혼으로 남고자 하였다(Sim, 2002). 비혼 성인남녀의 성분업적 역할 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05년 평균 남성 2.80, 여성 2.56, 2009년 남성 2.56, 여성 2.79점으로 성별 분업에 대해 가치관이 수용적으로 나타났다(Chim & Chung, 2010). Kang(2010)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비혼 여성은 집에서 무척 평등하게 자랐다고 하였다. 때로 아버지와 아들만 은수저로 바꾼다고 하여 딸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못 바꾸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자발적 비혼 여성도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남자와 평등하게 교육 시켰다고 하였다.

5) 직업 관련 요인

직업 관련 요인으로 비혼 성인남녀의 일 가치감, 고용 불안정성 변인을 포함하였다. 일 가치감(perceived value of work)을 통해 경험하는 심리적인 상태로 자신의 일이 가치 있으며, 자신이 조직에서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개념이다(Oh et al., 2004). 비혼 여성에게 일은 사회적 안정과 지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일은 사회적 소속감

과 현재 삶의 유지 원동력이 된다. 그러기에 비혼 성인남녀에게 일은 결혼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2015). 비혼 성인남녀에게 있어 일은 고정적인 수입을 넘어 자신을 나타내고 존재감을 표현하며(Noh & Lee, 2011) 경제적인 책임과 결혼은 미룰 수 있어도 경력을 미룰 수 없다는 가치가 되었다(Yang, 2005). Sim(2002)의 연구에서 자발적인 여성에게 일은 사회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 성취감을 얻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을 통한 성취감은 결혼 때문에 받고 있는 사회적 인정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다. Penman & Stock(1983)의 연구에서도 일이나 직업이 여성에게 자기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고용 불안정성은 비혼 성인남녀에게 비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자원이 된다. 이러한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면 비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에 삶의 원동력을 잃게 된다. Kim(2013)의 연구에서 취업한 남성은 비 취업한 남성보다 초혼연령이 낮게 나타나 취업이 결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Lee et al., 2005)에서도 우리나라 미혼남녀(20~44세) 중 남성 43.4%와 여성 17.9%가 경제적 요인으로 비혼을 선택하였다. 이들 중 실업·고용 불안정성은 여성이 5.78%, 남성이 13.2%로 결혼을 결정할 때 여성보다 남성의 고용 불안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정은 어려운 취업상황에서도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생각하기에 결혼을 꺼리게 하였다(Kang, 2017; Lloyd & South, 1996). Park(2011)의 연구에서도 여성은 확실한 직장을 얻을 때까지 결혼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Lee & Lee(2010)의 연구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고용 불안정은 급증하여 결혼준수를 감소시키고, 초혼연령을 상승시켜 성인남녀는 결혼을 연기하게 만들었다. Kang(2010)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비혼 여성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을 준비하고자 혼한 연애를 하거나 선을 볼 수도 없었다고 하였다. 즉, 평생의 동반자가 아닌 평생의 직장을 찾았던 것이다. 다른 참여자는 고용이 불안정해지며 남성이 직장을 잃으면 자신이 평생 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결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IMF를 거치며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아내가 취업한 부부관계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Sim(2002)의 연구에서 자발적 비혼 여성은 직장을 그만 두면 할 것도 없고 직장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잡아준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35세~49세 비혼 남녀이다. 35세라는 나이는 앞으로 자신이 독신을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분기점(Kang, 2010; Sim; 2002, Yang; 2005)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2016년 초혼연령은 남성 32.79세 여성 30.11세(Statistics Korea, 2017)로 성인남녀는 30대 중반 독립하는 시기로 볼 수 있기에 비혼 연령을 35세로 하였다. 연구대상 범위는 초혼 비혼 성인남녀를 조사하기에 50세 이상에서는 초혼을 찾기 어려워 49세로 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자료 수집은 2017년 7월 31일~8월 11일 서울 지역 35세~49세 비혼 성인남녀를 예비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2017년 8월 21일~9월 14일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35세~49세 비혼 성인남녀 총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95)					
Variables	Categories	n(%)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127(43.1)	Religion	Yes	212(71.9)
	Female	168(56.9)		No	83(28.1)
Age	35-39	89(30.2)	Parent living adult	Living with their parents	147(49.8)
	40-44	136(46.1)		Not-living with their parents	148(50.2)
	45-49	70(23.7)	Average Monthly income	200 under million won	75(25.4)
Education level	No higher than junior college graduation	71(24.0)		200-300under million won	107(36.3)
	University graduattion	171(58.0)		300 over million won	103(38.4)
	Higher than graduate school	53(18.0)	Occupation	White-collar	201(68.2)
				Blue-collar	94(31.8)

300명이었으며,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와 ‘면대면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참여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에 연구 목적, 비밀보장이 담긴 동의서의 동의를 한 참여자에 한해 설문을 구글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면대면 조사는 설문조사원을 선정한 후 그들을 중심으로 스노우볼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후 비밀보장의 동의를 받고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300부 중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설문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5부를 제외하고 총 295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에 따라 남성이 43.1%, 여성이 56.9%였으며, 연령은 40세~44세에서 46.1%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8.0%로 가장 많았고, 종교 ‘없음’은 28.1%, 종교 ‘있음’은 71.9%였다. 부모와 동거 않는 사람은 50.2%, 동거하는 사람은 49.8%였다.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은 36.3%로 가장 많았고 직업을 살펴보면 화이트칼라가 68.2%, 블루칼라가 31.8%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는 공무원, 사무직, 전문직, 학생이 포함되었다. 블루칼라는 기술직, 서비스직, 자영업이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오류와 검토 작업을 한 후 SPSS

Window 24.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 보았으며, 개별 변수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비혼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혼 유형 관련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으며,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우도값, 카이제곱을 살펴보고 지속적 자발형을 준거집단으로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3. 측정도구

1) 비혼 유형

본 연구에서는 비혼 유형을 자발성 여부(자발-비자발)와 지속성 여부(지속적-변화된)로 두 축을 중심으로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지속적 자발형은 과거(5년 전)에도 자발적 비혼이었으며 현재도 자발적 비혼을 유지하는 유형, 둘째, 변화된 자발형은 과거(5년 전)에는 비자발적 비혼이었으나 현재는 자발적 비혼으로 변화한 유형, 셋째, 지속적 비자발형은 과거(5년 전)에도 비자발적 비혼이었으며 현재도 비자발적 비혼을 유지,

Continuity		
Voluntariness	Continuous	Changed
	Continuous voluntary type	Changed voluntary type
	Continuous non-voluntary type	Changed non-voluntary type

<Figure 1> Types of Never-Married

넷째, 변화된 비자발형은 과거(5년 전)에는 자발적 비혼이었으나 현재는 비자발적 비혼으로 변화한 유형을 의미한다<Figure 1>.

2) 개인·심리 요인

비혼 성인남녀의 개인·심리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우울로 2가지 특성을 포함하였다.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Self esteem scale)로 조사하였다. Lee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8번 문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수정하여 총 10문항 중 9개 문항을 사용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 .87$ 로 신뢰할 수준이었다. Radloff(1977)의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Kwon & Kim(2004)이 한국 특성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 질문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자주 우울한 기분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정서적 증상 요인이다. 총 9개의 질문으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을 느끼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 .90$ 로 신뢰할 수준이었다.

3) 이성교제 요인(유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Kim(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이성 친구가 있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응답방식은 현재 이성교제 대상이 ‘있다’와 ‘없다’로 할 수 있다.

4) 원가족 요인

비혼 성인남녀의 원가족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의 결혼 요구로 구성하였다. 부모와의 관계는 Choi(2006)가 한국 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Parent-Child Relationship Instrument)를 Kim(2013)이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7개 문항으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유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버지는 Cronbach’s $\alpha = .94$, 어머니는 Cronbach’s $\alpha = .94$ 로 전체는 Cronbach’s $\alpha = .94$ 로 신뢰할 수준이었다. 부모의 부부갈등은 Grych 등(1992)이 개발한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는 부모의 갈등을 아동기 자녀가 평가하도록 고안된 도구이다. Kwon & Lee(1997)이 번안하고 Kim(2016)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 강도 하위척도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부부갈등 강도는 Cronbach’s $\alpha = .83$,

부부갈등 빈도는 Cronbach's $\alpha = .72$ 이다. 부모의 부부갈등 전체는 Cronbach's $\alpha = .85$ 로 신뢰할 수준이었다. 부모의 결혼 요구 문항은 Lee & Kim(2015), Kang(2015)의 연구에서 '귀하에 대한 부모님의 결혼 요구는 어떠합니까?'라는 응답은 '매우 강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강함(4점)'으로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결혼 요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5) 결혼 관련요인

결혼 관련 요인은 결혼 후 역할 부담감, 양성평등의식 2가지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결혼 후 역할 부담감은 Park & Yoo(2011)이 Lee et al(2009), Kong(2008)의 연구를 수정 보완하고 Kang(2015)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되었으며 총 6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후 역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Cronbach's $\alpha = .84$ 로 신뢰할 수준이었다. 양성평등의식은 한국 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남녀평등의식 검사를 Kim(2006)가 사용한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Cronbach's $\alpha = .84$ 로 신뢰할 수준이었다.

6) 직업 관련 요인

직업 관련 요인은 일 가치감, 고용 불안정성 2가지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일 가치감은 Oh et al(2004)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일 가치감(Perceived Value of Work: PVW)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개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응답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에 대한 가치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 .92$ 로 신뢰할 수준이었다. 고용 불안정성은 Johnson(1984)가 개발하여 Lee(2001), Jeong(2015)이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한 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Cronbach's $\alpha = .86$ 으로 신뢰할 수준이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비혼 유형

35세~49세 성인남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비혼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비혼 성인 남성의 비혼 유형을 살펴보면 지속적 자발형이 20.5%, 변화된 비자발형이 18.9%, 지속적 비자발형이 49.6%, 변화된 자발형이 11.0%로 나타났다<Table 2>. 비혼 남성의 연령에 따른 비혼 유형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35세~39세와 40세~44세는 지속적 비자발형이 많았으며, 45세~49세는 지속적 자발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비혼 남성의 학력에 따른 비혼 유형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문대 졸업 미만과 대학 졸업에서는 지속적 비자발형이, 대학원 이상에서는 지속적 자발형과 변환된 자발형이 많았다. 종교에 따른 비혼 유형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종교 '없음'과 '없음' 모두 지속적 비자발형이 많았다. 하지만 종교 '없음'은 지속적 비자발형, 지속적 자발형과 변환된 자발형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 월평균 소득, 직업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Never-married type differences depending on social factors of males

(n=127)

		Continuous voluntary type (n=26) (20.5%)	Changed voluntary type (n=24) (18.9%)	Continuous non-voluntary type (n=63) (49.6%)	Changed non-voluntary type (n=14) (11.0%)	n(%)	df	χ^2
Age	35-39	5(3.9)	6(4.7)	17(13.4)	3(2.4)	31(24.4)	6	12.734*
	40-44	7(5.5)	13(10.2)	43(26.8)	8(6.3)	62(48.8)		
	45-49	14(11.0)	5(3.9)	12(9.4)	3(2.4)	34(48.8)		
Educational level	No higher than junior college	8(6.3)	5(3.9)	11(8.7)	3(2.4)	27(21.3)	6	14.466*
	graduation	12(9.4)	13(10.2)	48(37.8)	6(4.7)	79(62.2)		
	University graduation Higher than graduate school	6(4.7)	6(4.7)	4(3.1)	5(3.9)	21(16.5)		
Religion	Yes	12(9.4)	10(7.9)	48(37.8)	10(7.9)	80(63.0)	3	12.979**
	No	14(11.0)	14(11.0)	15(11.8)	4(3.1)	47(37.0)		
Parent living adult	Living with their parents	12(9.4)	18(14.2)	34(26.4)	6(4.7)	70(55.1)	3	5.564
	Not-living with their parents	14(11.0)	6(4.7)	29(22.8)	8(6.3)	57(44.9)		
Average monthly income	200 under million won	5(3.9)	1(0.8)	6(4.7)	2(1.6)	14(11.0)	6	10.367
	200-300under million won	4(3.1)	10(7.9)	30(23.6)	4(3.1)	48(37.8)		
	300 over million won	17(13.4)	13(10.2)	27(21.3)	8(6.3)	65(31.2)		
Occupation	White-collar	17(13.4)	16(12.6)	34(26.8)	10(7.9)	77(60.6)	3	2.468
	Blue-collar	9(7.1)	8(6.3)	29(22.8)	4(3.1)	50(39.4)		

* $p<.05$, ** $p<.01$, *** $p<.001$

비혼 여성의 비혼 유형을 살펴보면 지속적 자발형이 33.9%, 변화된 비자발형이 19.6%, 지속적 비자발형이 22.6%, 변화된 자발형이 23.8%로 나타났다<Table 3>. 비혼 여성의 연령에 따른 비혼 유형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35세~39세는 지속적 자발형과 지속적 비자발형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40세~44세는 변화된 비자발형이 많았으며, 45세~49세는 지속적 자발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비혼 여성의 학력에 따른 비혼 유형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문대 졸업 미만에서는 지속적 자발형이, 대학 졸업에서는 지속적 비자발형이, 대학원 이상에

서는 지속적 자발형 많았다. 종교, 부모와 동거, 월 평균 소득, 직업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연구대상자의 비혼 유형 관련 요인

1) 비혼 남성

남성의 비혼 유형에 대한 분석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able 4>. 비혼 유형은 지속적 자발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으며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우도값은 -2LL은 207.62,

<Table 3> Never-married type differences depending on social factors of female

(n=168)

		Continuous voluntary type (n=57) (33.9%)	Changed voluntary type (n=33) (19.6%)	Continuous non-voluntary type (n=38) (22.6%)	Changed non-voluntary type (n=40) (23.8%)	n(%)	df	χ^2
Age	35-39	18(10.7)	14(8.3)	18(10.7)	8(4.8)	58(34.5)	6	15.549*
	40-44	20(11.9)	15(8.9)	14(8.3)	25(14.9)	74(44.0)		
	45-49	19(11.3)	4(2.4)	6(3.6)	7(4.2)	36(21.4)		
Educational level	No higher than junior college graduation	17(10.1)	7(4.2)	5(3.0)	15(8.9)	44(26.2)	6	12.917*
	University graduation	14(14.3)	21(12.5)	26(15.5)	21(12.5)	92(54.8)		
	Higher than graduate school	16(9.5)	5(3.0)	7(4.2)	4(2.4)	32(19.0)		
Religion	Yes	48(28.6)	22(13.1)	29(17.3)	33(19.6)	132(78.6)	3	4.336
	No	9(5.4)	11(6.5)	9(5.4)	7(4.2)	36(21.4)		
Parent living adult	Living with their parents	22(13.1)	19(11.3)	18(10.7)	18(10.7)	77(45.8)	3	3.082
	Not-living with their parents	35(20.8)	14(8.3)	20(11.9)	22(13.1)	91(54.2)		
Average monthly income	200 under million won	21(12.5)	10(6.0)	13(7.7)	17(10.1)	61(36.3)	6	3.994
	200-300under million won	17(10.1)	12(7.1)	17(10.1)	13(7.7)	59(35.1)		
	300 over million won	19(11.3)	11(6.5)	8(4.8)	10(6.0)	48(28.6)		
Occupation	White-collar	39(23.2)	29(17.3)	29(17.3)	27(16.1)	124(73.8)	3	5.182
	Blue-collar	18(10.7)	4(2.4)	9(5.4)	13(7.7)	44(26.2)		

* $p<.05$, ** $p<.01$, *** $p<.001$

카이제곱은 104.91이다. Pseudo R^2 (Nagelkerke)은 0.62이며 이는 전체 62%를 설명한다.

(1) 지속적 비자발형

비혼 남성의 '지속적 비자발형'과 관련 있는 변인은 연령, 종교, 월평균 소득이다. 40세~44세 비혼 남성은 45세~49세에 비해 지속적 자발형 보다 지속적 비자발형을 선택할 오즈가 $\text{Exp}(1.93)=6.91$ 배로 높았다. 즉, 40세~44세 비혼 남성은 연령이 가장 많은 45세~49세보다 지속적 비자발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둘째, 종교 '있음'은 종교가 '없음'에 비해 지속적 자발형 보다 지속적 비자발형을 선택할 오즈가 $\text{Exp}(1.42)=4.16$ 배로 높았다. 즉,

종교 '있음'은 종교 '없음'에 비해 지속적 비자발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셋째, 월평균 소득은 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일 때는 300만원 이상 일 때에 비해 지속적 자발형 보다 지속적 비자발형을 선택할 오즈가 $\text{Exp}(1.87)=6.49$ 배로 높았다. 즉, 월평균 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일 때는 300만원 이상 일 때에 비해 지속적 비자발형을 선택하였다.

(2) 변화된 자발형

비혼 남성의 '변화된 자발형'과 관련 있는 변인은 종교,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의 부부갈등 빈도, 부모의 부부갈등 강도이다. 첫째, 종교 있음은 종교 없음에 비해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자발형

을 선택할 오즈는 $\text{Exp}(2.36)=10.59$ 배로 높았다. 즉, 종교 있음은 종교 없음에 비해 변화된 자발형을 선택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자발형을 선택할 오즈는 $\text{Exp}(-0.29)=0.75$ 배로 낮았다. 셋째, 우울이 높을 때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자발형을 선택할 오즈는 $\text{Exp}(-0.26)=0.77$ 배로 낮았다. 넷째, 부모의 부부갈등 빈도가 높을 때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자발형을 선택할 오즈는 $\text{Exp}(0.42)=1.56$ 배로 높았다. 즉, 부모의 부부갈등 빈도가 높을 때 변화된 자발형을 선택하였다. 다섯째, 부모의 부부갈등 강도가 높을 때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자발형을 선택할 오즈는 $\text{Exp}(-0.51)=0.60$ 배로 낮았다.

(3) 변화된 비자발형

비혼 남성의 '변화된 비자발형'과 관련 있는 변인은 부모와 동거이다. 부모와 동거는 부모 동거하지 않을 때에 비해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비자발형을 선택할 오즈는 $\text{Exp}(1.98)=7.26$ 배로 높았다. 즉, 비혼 부모와 동거하는 비혼 남성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때에 비해 변화된 비자발형을 선택하였다.

이상으로 비혼 남성의 유형 관련 요인은 지속적 비자발형에서 연령, 종교, 월평균 소득이 관련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변화된 자발형에서는 종교,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의 부부갈등 빈도와 강도가 관련 변인으로 나타났다. 변화된 비자발형에서 부모와 동거가 관련 변인으로 나타났다.

2) 비혼여성

여성의 비혼 유형에 대한 분석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able 5>. 비혼 유형은 지속적 자발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우도값은 -2LL은 345.99이

며, 카이제곱은 112.42이다. Pseudo R^2 (Nagelkerke)은 0.52이며 이는 전체 52%를 설명한다.

(1) 지속적 비자발형

비혼 여성의 '지속적 비자발형'과 관련 있는 변인은 부모의 결혼 요구이다. 부모의 결혼 요구가 약할 때는 강할 때보다 지속적 자발형 보다 지속적 비자발형을 선택할 오즈가 $\text{Exp}(-1.76)=0.17$ 배로 낮았다.

(2) 변화된 자발형

비혼 여성의 '변화된 자발형'과 관련 있는 변인은 연령, 우울, 부모의 부부갈등 강도이다. 첫째, 40세~44세는 연령이 가장 많은 45세~49세에 비해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자발형을 선택할 오즈가 $\text{Exp}(1.38)=3.98$ 배로 높았다. 즉, 40세~44세는 연령이 가장 많은 45세~49세에 비해 지속적 자발형보다 변화된 자발형을 선택하였다. 둘째, 우울이 높을 때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자발형을 선택할 오즈가 $\text{Exp}(0.13)=1.14$ 배로 높았다. 즉, 우울이 높을 때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자발형을 선택하였다. 셋째, 부모의 부부갈등 강도가 높을 때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자발형을 선택할 오즈는 $\text{Exp}(-0.26)=0.77$ 배로 낮았다.

(3) 변화된 비자발형

비혼 여성의 '변화된 비자발형'과 관련 있는 변인은 연령, 종교, 부모와 동거, 우울, 부모의 결혼 요구이다. 첫째, 35세~39세는 연령이 가장 많은 45세~49세에 비해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비자발형을 선택할 오즈가 $\text{Exp}(2.29)=9.82$ 배로 높았다. 즉, 35세~39세는 연령이 가장 많은 45세~49세에 비해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비자발형을 선택할 오즈가 $\text{Exp}(2.08)=7.97$

<Table 4> Factors related to naver-married type of males

	Continuous non-voluntary type (n=63) (49.6%)		Changed non-voluntary type (n=14) (11.0%)		Changed voluntary type (n=24) (18.9%)	
	B	EXP()	B	EXP()	B	EXP()
Intercept	-.97		-5.26		12.25	
<u>Socio-demographic factors</u>						
Age(standard=45-49)						
35-39	1.19	3.28	1.23	3.44	1.72	5.61
40-44	1.93*	6.91	1.70	5.46	1.34	3.82
Education level(standard= higher than graduate school)						
No higher than junior college graduation	-.16	.85	-1.91	.15	-1.42	.24
University graduation	.48	1.62	-1.16	.31	-1.56	.21
Religion(standard=no)						
Yes	1.42*	4.16	-.16	.19	2.36*	10.59
Parent living adult(standard=not-living)						
Living with their parents	.73	2.07	1.98*	7.26	.60	1.82
Average monthly income (standard=300 over million won)						
200 under million won	.80	2.23	-.51	.60	-.26	.77
200-300under million won	1.87*	6.49	1.70	5.48	.46	1.59
Occupation(standard=blue-collar)						
White-collar	-1.01	.36	-.20	.82	-.77	.46
<u>Individual and psychological factors</u>						
Self-esteem	-.04	.96	.03	1.03	-.29*	.75
Depression	-.02	.98	.03	1.03	-.26*	.77
<u>Dating relationship factors</u> (standard= have partner)						
No	.78	2.18	.68	1.98	-.04	.97
<u>Original family factors</u>						
Parental conflict (frequency)	.23	1.25	.17	1.18	.42*	1.56
Parental conflict (intensity)	-.02	.98	-.13	.88	-.51*	.60
Relationship with parther	.04	1.04	.06	1.06	.08	1.09
Relationship with monther	-.13	.88	-.16	.86	-.10	.91
Parents' demand for marriage (standard=strong)						
Weakness	-1.44	.24	-1.06	.35	.17	1.19
<u>Marriage related factors</u>						
Division of roles after marriage	-.07	.94	-.00	1.00	-.13	.88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13	.88	.02	1.02	-.00	1.00
<u>Occupation related factors</u>						
Work values	.22	1.25	.15	1.16	.07	1.07
Employment instability	.04	1.04	-.00	1.00	.13	1.14
$n=295, \chi^2(df=104.91(63), -2LL=207.62$						
Pseudo R ²	0.62**					

* $p < .05$, ** $p < .01$, *** $p < .001$

배로 높았다. 즉, 40세~44세는 연령이 가장 많은 45세~49세에 비해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비자발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셋째, 종교 '있음'은 종교 '없음'에 비해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비자발형을 선택할 오즈가 $\text{Exp}(-2.00)=0.14$ 배로 낮았다. 넷째, 부모와 동거는 부모와 비동거 비해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비자발형을 선택할 오즈가 $\text{Exp}(1.68)=5.39$ 배로 높았다. 즉, 부모와 동거는 부모와 비동거 비해 변화된 비자발형을 선택하였다. 다섯째, 우울이 높을 때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비자발형을 선택할 오즈가 $\text{Exp}(0.24)=1.27$ 배로 높았다. 즉, 우울이 높을 때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비자발형을 선택하였다. 여섯째, 부모의 결혼 요구가 약할 때는 강할 때에 비해 지속적 자발형 보다 변화된 비자발형을 선택할 오즈가 $\text{Exp}(-2.68)=0.07$ 배로 낮았다.

이상으로 비혼 여성의 유형 관련 요인은 지속적 비자발형에서 부모의 결혼 요구가 관련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변화된 자발형에서는 연령, 우울, 부모의 부부갈등 강도가 관련 변인으로 나타났다. 변화된 비자발형에서는 연령, 종교, 부모와 동거, 우울, 부모의 결혼 요구가 관련 변인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성인남녀의 비혼 유형을 나누고 관련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종교, 부모와 동거,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 변인을 포함하였다. 개인, 심리 요인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우울 변인을 포함하였다. 이성교제 요인에서는 이성교제 유무를 변인으로 포함하였으며, 원가족 요인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빈도, 강도), 부모와의 관계, 부모

의 결혼 요구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결혼 관련 요인으로는 결혼 후 역할 부담감, 양성평등의식을 변인으로 포함하였으며, 직업 관련 요인으로는 일 가치감과 고용 불안정성 변인을 포함하였다. 성인 남녀의 비혼 유형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35세~49세 비혼 남성의 유형을 살펴보면 지속적 자발형이 20.5%, 변화된 비자발형이 18.9%, 지속적 비자발형이 49.6%, 변화된 자발형이 11.0%로 나타났으며, 비혼 여성의 유형을 살펴보면 지속적 자발형이 33.9%, 변화된 비자발형이 19.6%, 지속적 비자발형이 22.6%, 변화된 자발형이 23.8%로 나타났다.

둘째, 비혼 남성은 연령, 학력, 종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비혼 여성은 연령, 학력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비혼 성인남녀의 비혼 유형에서 '지속적 비자발형'의 관련 변수는 비혼 남성은 40세~44세로 연령, 종교, 200~300만원 미만의 월평균 소득 변인이다. 비혼 여성은 부모의 결혼 요구 변인이다. '변화된 자발형'에서 관련 변수는 비혼 남성은 종교, 자아존중감, 우울, 부모의 부부갈등 빈도, 부모의 부부갈등 강도 변인이다. 비혼 여성은 40세~44세로 연령, 우울, 부모의 부부갈등 강도 변인이다. '변화된 비자발형'의 관련 변수는 비혼 남성은 부모와 동거 변인이다. 비혼 여성은 연령이 35세~39세, 40세~44세로 연령, 종교, 부모와 동거, 우울, 부모의 결혼 요구 변인이다.

본 연구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에 따라 비혼 유형에 차이가 나타나 논의하고자 한다. 남성은 '지속적 비자발형'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지속적 자발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k(1999)는 32세~38세 비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남성은 비자발적 비혼이 많았으며, 여성은 자발적 비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와 일치하였다. Lee(2012)의 연구에서도 남성

<Table 5> Factors related to never-married type of female

	Continuous non-voluntary type (n=38) (22.6%)		Changed non-voluntary type (n=40) (23.8%)		Changed voluntary type (n=33) (19.6%)	
	B	EXP()	B	EXP()	B	EXP()
Intercept	-3.36		-13.19		-1.91	
Socio-demographic factors						
Age(standard=45-49)						
35-39	1.24	3.46	2.29*	9.82	.34	1.41
40-44	.74	2.11	2.08*	7.97	1.38*	3.98
Education level(standard= higher than graduate school)						
No higher than junior college graduation	-.60	.55	1.44	4.23	1.65	5.22
University graduation	.19	1.21	.88	2.42	.75	2.12
Religion(standard=no)						
Yes	-1.36	.26	-2.00*	.14	-.76	.47
Parent living adult(standard=not-living)						
Living with their parents	.61	1.84	1.68*	5.39	.55	1.74
Average monthly income (standard=300 over million won)						
200 under million won	.32	1.37	-1.18	.31	-.29	.75
200-300under million won	.76	2.15	-.56	.57	-.03	.97
Occupation(standard=blue-collar)						
White-collar	.29	1.34	1.36	3.88	-.12	.89
Individual and psychological factors						
Self-esteem	.07	1.07	.11	1.12	.05	1.05
Depression	.05	1.05	.24***	1.27	.13*	1.14
Dating relationship factors (standard= have partner)						
No	.03	1.03	.68	1.96	1.27	3.56
Original family factors						
Parental conflict (frequency)	.09	1.09	.14	1.15	.21	1.24
Parental conflict (intensity)	-.07	.94	-.14	.87	-.26*	.77
Relationship with parther	.04	1.04	-.04	.97	.02	1.02
Relationship with monther	.02	1.02	.07	1.07	.03	1.03
Parents' demand for marriage (standard=strong)						
Weakness	-1.76**	.17	-2.68***	.07	-.73	.48
Marriage related factors						
Division of roles after marriage	.02	1.02	-.03	.97	.02	1.02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08	.93	.01	1.01	-.10	.90
Occupation related factors						
Work values	-.03	.97	-.01	.99	-.07	.93
Employment instability	.08	1.08	.05	1.05	-.03	.97
n=295, x ² (df)=112.42(63), -2LL=345.99						
Pseudo R ²	0.62**					

*p<.05, **p<.01, ***p<.001

은 ‘여건 미비형’에서 자신의 여건이 마련된다면 결혼을 원했지만 여성은 ‘자기 선택형’으로 결혼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확보될 때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비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비혼 인구 증가에 예측되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대상자인 35세~49세 성인남녀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1970년대, 1980년 코호트에 포함된다. 199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이들의 취업 및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가져왔으며, 외환위기 당시 가장의 실직 및 대량 해고사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70년, 80년대 코호트는 직업선택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높은 결혼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부담감은 비혼을 결심하고, 유지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위기는 전통적 성역할의 변화도 가져왔다. 경제적 위기로 인해 가계를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의 역할에 한계가 오면서 여성도 생계부양의 책임을 분담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는 결국 여성으로 하여금 비혼을 유지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와 동거 여부가 비혼 유형에 관련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때 보다 부모와 동거할 때 ‘변화된 비자발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는 ‘자발적 비혼’이었지만 현재는 ‘비자발적 비혼’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Hong(2011)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동거하는 비혼 여성은 결혼에 비자발적 태도를 보여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와 자녀의 동거는 부모에게 의

존하는 ‘기생(자녀의 필요 때문에 동거)’과 ‘부양(부모의 필요에 동거)’ 두 가지로 보았다. 최근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를 ‘캥거루족’, ‘기생 독신’, ‘트릭스터(twixter: 싱글로 부모 집에 얹혀사는 자녀)’, 프랑스의 ‘타이(tanguy: 독립하지 않는 청년의 이야기 영화 제목)’, 영국의 ‘키 퍼스(kippers: 부모 지갑에서 연금을 축내는 자녀)’ 등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ee, 2016; Sung et al., 2017). Choi(2014)는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를 가족학 차원에서 체계적인 조명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결혼연령 상승 및 비혼 인구의 증가로 인한 저출산 문제 악화를 가족 관계적 측면에서 의존적인 비혼 성인은 부모-자녀 관계 또는 부모의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생애과정 관점에서는 비혼 성인이 발달과업 전환에 실패하며 부모-자녀 관계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Sung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비혼 성인 자녀가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와 비동거할 때 보다 동거할 때 ‘변화된 비자발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학문적인 연구(Choi, 2014)와 관계적인 측면(Sung et al., 2017)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과거에는 자발적 비혼이었다가 부모와 동거하며 비자발적 비혼으로 변하는 요인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의 부부갈등 변인이 비혼 유형에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의하고자 한다. 성인남녀는 어린 시절 부모의 부부갈등, 가정불화가 비혼의 계기가 되었다(Noh & Lee, 2011; Sung, 2013; Sim, 2002; Lee & Kim, 2015). Kang(2010)의 연구에서도 비혼 여성은 부모님의 ‘질리는’ 싸움을 보고 자발적인 비혼을 결정하였다. 본 결과에서도 부모의 부부갈등은 성인남녀 모두 ‘변화된

자발형'과 관련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새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에 대해 자연스러운 것(Sung, 2013)이라고 생각하다가도 부모의 '질리는' 부부갈등을 경험하며 Kagn(2010) 변화된 자발형으로 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은 부모의 부부갈등 빈도가 높을 때는 '변화된 자발형'을 선택했으며, 부모의 부부갈등 강도가 낮을 때는 '변화된 자발형'을 선택하여 부모의 부부갈등 체계 안에서도 여러 차이가 있어 비혼 성인남녀의 부모의 부부갈등에 따른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부모의 결혼 요구 변인은 여성은 관련 있었지만 남성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부모의 결혼 요구가 강할 때 '지속적 비자발형'과 '변화된 비자발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2018)의 연구에서 자발적 비혼 여성은 결혼하지 않을 것을 주변에 알렸음에도 결혼에 대한 권유와 선이나 만남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도 자발적 비혼을 선택하고(Kang, 2018) 부모의 강요를 무시해 버리고(Park, 2012) 자발적 비혼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결과와 부모의 결혼 요구가 강할 때는 '변화된 비자발형'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hae & Park(1998)의 연구에서도 결혼하라는 압박을 받는 여성은 막다른 골목 부딪친 것처럼 결혼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압력은 결혼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즉, 부모의 결혼 요구가 강할 때 여성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 결혼으로 내 몰리거나 비자발적 비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남성에게는 부모의 결혼 요구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혼 남성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혼 성인남녀의 35세~49세 연령대에서는 사실혼이나 동거하는 사람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음에도 통제

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혼의 자발성 여부를 과거와 현재를 5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30대의 비혼과 40대의 비혼은 다를 수 있으며 연령에 따른 생각과 비혼의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고려하지 못했다. 셋째, 과거(5년 전)의 비혼에 대한 생각이 현재 비혼 상태의 자발성 여부에 오염되어 과거 5년 전의 생각을 회색시킬 수 있지만 고려하지 못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기에 그 한계로 비혼 관련 다양한 변인을 포함시킬 수 없었다. 다섯째, 부모의 결혼 요구는 성인남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한 문항으로 조사하여 다양한 접근을 못하였다.

참고문헌

- Allen, K. R., & Pickett, R. S. (1987). Forgotten streams in the family life course: Utilization of qualitative retrospective interviews in the analysis of lifelong single women's family care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 517-526.
- Auh, S. Y., Cho, H. K., & Koh, S. K. (2010). Research on the delayed family formation phenomenon among the never-married professionals in Korea: A qualitative study with focus group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2), 1-19.
- Baumeister, R. (1994). Self-esteem.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4, 83-97.
- Brady, M. C. (1993). What are single people called to do? *US catholic*, 58(7), 32.
- Chai, M. J., & Park, H. I. (1998). A feminist approach to marriage socialization, marriage decision-making, and reality of

- women. *Science Journal*, 24, 35-59.
- Chin, M. J., & Chung, H. E. (2010).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on intentions of marriage and expected age at first marriage. *The Population of Korea*, 33(3), 31-51.
- Choi, I. J.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 version of parent-child relationship instrument.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5(2), 45-56.
- Choi, Y. S. (2014).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adult children cohabiting with their parents and an exploration of the frame of analysi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4), 75-89.
- Chung, H. S. (2007). A critical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in marriage rates and recommendations for family polic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6), 177-193.
- Cooney, T., & Uhlenberg, P. (1989). Family-building patterns of professional women: A comparison of lawyers, physicians and postsecondary teac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3), 749-758.
- Cooney, T. M., & Dennis H. (1991). Marriage in an institutionalized life course: First marriage among american men in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78-190.
- Cunningham, M., & Thornton, A. (2006).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quality on adult children's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its alternatives: Main and moderating effects. *Demography*, 43(4), 659-672.
- Demo, D. H. (1992). Parent-child relations: Assessing recent chan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104-117.
- DePaulo, B. M., & Morris, W. L. (2005). Target article: Singles in society and in science. *Psychological Inquiry*, 16(2), 57-83.
- DePaulo, B. M., & Morris, W. L. (2006). The unrecognized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against singl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5(5), 251-254.
- Elliot, M. (1996). Impact of work, family, and welfare receipt on women's self-esteem in young adulthood.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9, 80-95.
- Eum, K. S. (2015). *The life history study on the marriage and life of christian middle-aged naver-married women: Focus on women who have experienced minist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Bible University, Seoul, Korea.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Hartens, S. (1990). *Self and identity development*. In *At the Threshold*, edited by Feldman, L. S., and Elliot, G., New York: Plenum.
- Hong, E. Y. (2011). *Attitude towards marriage among unmarrieds and the effect of their dependence on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 Jeong, E. S. (2015). *Impact of views on marriage and tendency to delay marriage on childbearing intention of single company employe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Jo, S. H. (2014). The unmarried population in Korea: Trends and characteristics. *Health-welfare Policy Forum*, 213, 14-23.
- Jung, H. H. (2011). Women in Korea society: Read from non marriage phenomenon. *Female theory*, 25, 233-240.
- Jung, I. H. (2012). A study on self-esteem and influencing factors of adults by life cycle:

- Comparison of young, middle and old. *Crisisonomy*, 8(6), 231-247
- Jung, J. H. (2011). *Influence of financial independency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in unmarried men and women upon marriage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J. Y. (2015).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phenomenon of the unmarried christian women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E. Y. (2010). *An autobiographical life history study on the voluntary ever-singl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Y. J. (2018).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women who choose voluntarily non-marriage: Focusing on women in their thir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E. Y., Chin, M. J., & Ok, S. W. (2010).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women's voluntary ever-singleness: Focusing on marriage and family valu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2), 135-144.
- Kim, C. S. (2006). Marriage intention among never-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The Population of Korea*, 29(1), 57-60.
- Kim, H. J. (2006). *The effects of family of origin rules,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gender equality awarenes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Y. (2001). The changes in the familism of Korea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2(1), 79-105.
- Kim, H. Y. (2007). A study on the non-marriage reasons and family consciousness of a lone person household. *Journal of Social Studies*, 1041-1057.
- Kim, H. Y., & Sun, B. Y. (2011). Women's late marriage and marriage intent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2(2), 3-35.
- Kim, H. Y., Sun, B. Y., Jean, M. J., & Sakong, E. H. (2007). *A study on the family consciousness and living condi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im, J. E. (2016). *Influences of marital conflict and maternal anger, depression, abuse and neglect on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R. (2013). *Study on experiences of unmarried ol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Y., & Cho, H. S. (2014). The effect of dating relationship, marriage perspectives, and marriage images on college students expected age of marriag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9(2), 123-143.
- Kim, K. W., & Kim, T. H. (2005). Qualitative study the causes of being single and gender differenc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3(6), 61-79.
- Kim, M. S. (2016). Social characteristics of never-married women around Cheongju areas. *The Population of Korea*, 39(4), 103-152.
- Kim, M. S. (2016).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regarding experiences of living as middle-aged voluntary ever-single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Seoul, Korea.
- Kim, R. Y. (2013). *Economic and social variables affecting the increase in marriage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O. (2002). A study on the single's kinship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6), 173-184.
- Kim, S. O. (2005). A study on the welfare strategies for the Singles. *Living science*, 8, 21-38.
- Kim, S. R. (2007). *Social construction of new life course: A study on the single culture of the highly educated never-marri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M. (2012). The role of family policy in explaining gender role attitudes: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of welfare states.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9(2), 211-241.
- Kim, Y. H. (2013). *The mediation effect of achievement pressur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bonding and career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R. (2008). *A study on the marriage value and it's associated variables for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based on the family ecological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o, J. W. (2011). *A Qualitative research behind the socio-psychological reasons for educated men delaying marri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Kong, S. H. (2008). *The world of family life and baby consciousness in seoul*. Seoul. Women's Family Foundation Research Institute.
- Kwon, M. A., & Kim, T. H. (2004). A study of the effects on premarital adult children aged thirties psychological depression by parents-children differentiation and expressed emo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5), 197-210.
- Kwon, M. Y. (2012). *A study on experience of ever-single women in unstable lab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C. S. (2012). Sociodemographic factors in non-marriages in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38(3), 49-71.
- Lee, I. S. (2000). *A study on the supporting methods of independent women in non-married women*. Seoul: The women's association of Korea.
- Lee, J. H. & Kim H. J. (2015). A study on a process of maintaining never married status of never-married men in their 40's using grounded theor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2), 101-134.
- Lee, J. K. (2003). *In the name of family*. Seoul: Another culture.
- Lee, J. Y., Nam, S. K., Lee, M. K., Lee, J. H., & Lee, S. M. (2009).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alysis of item-level valid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1), 173-189.
- Lee, S. B. (2016). *Freedom not to select*, Seoul: Hummingbird.
- Lee, S. H., & Lee, S. H. (2011). A cause analysi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Korea: Evidence from economic factors in marriage determination. *Economic analysis*, 17(3), 131-166.
- Lee, S. E. (2015). The research on the examination

- of the single household women's lives focussed on an analysis of the family system. *Ewha Law*, 7(2), 73-112.
- Lee, S. E., Park, H. J., & Yoo, J. M. (2012). *Establishing measures to support the policies of single non-marriage households in seoul. seoul. women's family foundation in seoul.*
- Lee, S. L., & Kim D. S. (2002). Effects of the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lationship on the attitudes of the middle aged on old-age security. *The Population of Korea*, 25(1), 83-111.
- Lim, H. M., & Kim, J. B. (2013). The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on desired age at marriage. *The Population of Korea*, 36(3), 45-67.
- Macklin, E. D. (1980). Nontraditional family forms: A decade of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905-917.
- Maume, D. J. (2006). Gender differences in restricting work efforts because of family responsibilit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4), 859-869.
- Noh, M. W., & Lee, I. S. (2011). Family experiences of never-married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1), 77-101.
- O'Brien, M. (1991). Never married older women. *The life experi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3), 301-315.
- Oh, D. K., Lee, Y. S., Kim, M. U., & Suh, Y. W. (200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erceived value of work and its determinants.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7(2), 187-221.
- Ok, G. J. (199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dissatisfaction of never-married sing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 Park, D. E., & Yoo, G. S. (2011). The delaying & advancing factors of marriage & fertility timing among married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2) 29-65.
- Park, J. Y., & Kim, Y. R. (2010). The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perception on marriage attitudes of single males and femal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4), 13-24.
- Park, J. Y. (2012). *A study on the parent care of a non-wife daugh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K. N. (2011). The reality and choice of instable employment of single women's in their 20's-30's.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27(1), 1-39.
- Penman, Robyn & Stock, Yvonne. (1983). *Not the marrying kind*, Penguin Books. Australia.
- Pfeiffer, E. & Davies, G. (1977). Deter minutes of sexual behaviour in middle and old ag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0, 151-158.
- Population Association. (2016). A population dictionary. Seoul: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Roh, M. S. (2008). *A study on the gender/age positionality of unmarried women of high education in their 30'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Ryu, Y. H. (2007). *A study on the contradiction of subjectivity Revealed on view of marriage of Highly-educated unmarried wom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hostak, A. B., & Steinmetz, S. K. (1987).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chapter 13, singlehood. 355-366. Philadelpia : Drexel University Press.
- Sim, K. M. (2002). *(A) Study on Korean*

- unmarried 'bihon' Women: Concerning socio-cultural actors which influence unmarried women in their mid-thirty to late for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Seoul, Korea.
- Simenauer, J., & Carroll, D. (1982). Singles: The new americans. New York: Simon & Schuster.
- Sin, K. R. (2001). Depression among Korea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3), 391-400.
- South, S. J. (2001). The variabl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on the timing of first marriage: United States 1969-1993. *Social Science Research*, 30(44), 606-626.
- Stein, P. J. (1981). Single life: Unmarried adults in social context. New York: St. Martin's Press. 10-11.
- Statistical Korea. (2017). Non-marriage statistics. kostat.go.kr.
- Sung, M, A. (2013). The disassembly and reconfiguration of the marriage and family discussions of non-horn women in their 40s and 50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handbook of academic publications*, 171-184.
- Sung, M, A. (2014). The lives of never-married women in their 40s and 50s: Current freedom, unsecure future and exclusion from polici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9(2), 145-168.
- Sung, M. A., & Ok, S. W. (2002). A study on the implication of typologies in the family studi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2), 1-13
- Sung, M. A., Choi, Y. S., Choi, S. E., & Lee, J. R. (2017). Elderly parents-unmarried adult children relationships: Group differences by co-residency and economics dependency of adult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5(1), 139-158.
- Thornto, A., Axinn, W., & Teachman, J. (1995). The influence of school enrollment and accumulation on cohabitation and marriage in early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762-774.
- Um, M. Y., & Kim, H. S.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uture work-family compatibility, gender attitude of couples, and reasons for low birth rate. *The Population of Korea*, 34(3), 179-209.
- White, L., & Peterson, D. (1995). The retreat from marriage: Its effect in unmarried children's exchange with parent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7, 428-434.
- Yang, E. J. (2005). *(The) study of life and career development of the highly educated never-married career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Yoo, G. S., & Oh, A. R. (2011). The effects of job search attitudes, self-esteem and gender-role attitudes on expected marriage ag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23(2), 145-170.

접 수 일: 2018. 07. 31

심 사 일: 2018. 08. 17

게재확정일: 2018. 10. 25

Table 6> Correlation of naver-married related facto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	1																																			
2	-1.00"																																			
3	-.11	.10	1																																	
4	.05	-.05	-.61**	1																																
5	.06	-.06	-.37**	-.52**	1																															
6	-.06	.06	-.06	.04	.02	1																														
7	.08	-.08	.07	.07	-.16**	-.66**	1																													
8	-.03	.03	-.02	-.13*	.18**	-.26**	-.55**	1																												
9	-.17**	.17**	.00	-.04	.05	-.11	.08	.02	1																											
10	.17**	-.17**	.00	.04	.05	.11	-.08	-.02	-1.00"	1																										
11	.09	-.09	-.06	.11	-.06	-.07	.04	.03	.05	-.05	1																									
12	-.09	.09	.06	-.11	.06	.07	-.04	-.03	-.05	.05	-.1.00"	1																								
13	-.29**	.29**	.01	.05	-.07	.22**	-.12*	-.09	.00	-.00	-.04	.04	1																							
14	.03	-.03	.03	.08	-.12*	.02	.10	-.15**	.06	-.06	.12*	-.12*	-.44**	1																						
15	.23**	-.23**	-.03	-.13*	.18**	-.22**	.01	.23**	-.07	.07	-.09	.09	-.46**	-.60**	1																					
16	-.14*	.14*	.05	.03	-.10	-.14*	.05	.09	.03	-.03	.11	-.11	.02	.06	.05	1																				
17	.14*	-.14*	.05	-.03	.10	.14*	-.05	-.09	-.03	.03	.11	-.11	-.02	.06	-.05	-1.00"	1																			
18	-.12*	.12*	.03	-.08	.06	-.13*	-.01	.16**	-.01	.01	.02	-.02	-.10	-.08	.17**	-.01	.01	1																		
19	.10	-.10	-.06	.00	.06	-.02	.08	-.08	.08	-.08	.01	-.01	.00	.03	-.04	-.13*	.13*	-.57**	1																	
20	-.12*	.12*	-.08	.01	.08	-.16**	.10	.05	.24**	-.24**	-.00	.00	.07	.00	-.07	.10	-.10	-.04	.01	1																
21	.12*	-.12*	.08	-.01	-.08	.16**	-.10	-.05	-.24**	.24**	.00	-.00	-.07	-.00	-.07	.10	.10	.04	-.01	-.1.00"	1															
22	.00	-.00	.02	-.04	.03	.05	-.03	-.02	-.01	.01	-.00	.00	.18**	-.06	-.10	.01	-.01	.13*	.06	-.06	1															
23	-.01	.01	-.02	-.02	.05	.11	-.05	-.06	.03	-.03	.01	.12*	-.03	-.09	.05	-.14*	.14*	.13*	.13*	.63**	1															
24	.13*	-.13*	.01	-.02	.01	-.05	.05	-.01	-.03	.03	-.02	.02	-.21**	-.03	.21**	-.10	.10	.14*	-.12*	-.14*	-.46**	-.44**	1													
25	-.06	.06	.11	-.10	.00	-.18**	.04	.15*	.02	-.02	-.02	.02	-.15**	-.00	.14*	-.01	.01	.34**	-.27**	-.05	.05	-.25**	-.27**	.49**	1											
26	-.04	.04	-.12*	.02	.11	.12*	-.18**	.09	-.10	.10	.09	-.09	.14*	-.13*	.00	-.02	.02	.11	-.08	.05	-.05	.23**	.13*	-.08	-.05	1										
27	.04	-.04	.12*	-.02	-.11	-.12*	.18**	-.09	.10	-.10	-.09	.09	-.14*	.13*	.00	.02	-.02	-.11	.08	.05	.05	-.23**	.13*	.08	.05	-.1.00"	1									
28	.09	-.09	-.07	.01	.06	.07	-.08	.03	.03	-.03	.07	.07	-.03	.02	.01	-.12*	.12*	-.20**	.26**	-.09	.09	.15*	.11	-.09	-.21**	-.03	.03	1								
29	-.10	.10	-.03	-.03	.07	.16**	-.26**	.16**	-.20**	.20**	-.10	.10	.09	-.18**	.10	-.02	.02	.29**	-.35**	-.13*	.13*	.13*	-.13*	-.00	.07	.35**	-.35**	.08	1							
30	-.06	.06	.12*	-.15*	.05	-.13*	.02	.11*	.11	-.11	.07	-.07	-.10	-.08	.17**	.04	-.04	.52**	-.36**	.02	-.02	-.12*	-.16**	.17**	.35**	.01	-.01	-.18**	.19**	1						
31	.07	-.07	-.18**	.05	.14*	.08	.01	.10	.07	-.07	-.02	.02	.12*	.07	-.18**	.13*	.13*	-.29**	.37**	.06	-.06	.12*	.04	-.10	-.32**	.11	-.11	.24**	-.15*	-.18**	1					
32	-.15*	.15*	-.03	-.17**	.24**	.09	-.19**	.14*	.01	-.01	-.11	.11	.09	-.14*	.07	-.01	.12*	-.20**	.01	-.01	.01	.10	-.05	.02	.30**	-.30**	-.04	.25**	.08	1						
33	-.01	.01	.05	.03	-.09	-.04	.02	.02	-.17**	.17**	.15*	-.15*	-.07	.02	.04	.11	-.11	.04	.10	-.04	.04	.02	-.06	-.02	.01	-.10	.10	.00	.04	.00	-.06	-.31**	1			
34	.28**	-.28**	.07	.02	-.10	-.14*	.22**	-.13*	.07	-.07	.02	-.02	-.11	.15**	-.05	-.09	.09	.11	-.02	.02	-.02	.05	.03	-.04	-.23**	.23**	.02	-.29**	.00	.11	-.45**	-.35**	1			
35	-.16**	.16**	-.10	.14*	-.06	.10	-.08	-.02	.08	-.08	-.05	.05	.11	-.05	-.05	.00	-.00	.08	.00	.06	-.06	.00	-.11	.04	.02	.03	-.03	.02	.02	.11	.01	-.30**	-.23**	-.34**	1	

*p<.05 **p<.01 ***p<.001

1. Male 2. Female 3. (Age)35-39 4. (Age)40-44 5. (Age)45-49 6. No higher than junior college graduation 7. University graduation 8. A Higher than graduate school 9. (Religion) Yes 10. (Religion) No 11. Living with their parents
 12. not-Living with their parents 13. (Income)200 under million won 14. (Income) 200-300 million won 15. (Income) 300 over million won 16. White-collar 17. blue-collar 18. Self-esteem 19. Depression 20.have partner 21. Parental conflict (frequency)
 23. Parental conflict (intensity) 24. Relationship with mother 25. Relationship with partner 26. Parents demand for marriage weakness 27. Parents demand for marriage strong 28. Division of roles after marriage 29.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30. Work values 31. Employment instability 32. Continuous voluntary type 33. Changed voluntary type 34. Continuous non-voluntary type 35. Changed non-voluntary type